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6호 【무게 제25575호】 주제 106 (2017)년 3월 7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은 나라 천만군민이
택전택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정의의 혁명
경, 필승불패의 백두산
총대를 역세게 들어리고
사상최악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협과 핵전쟁연
습을 방관적으로 벌리며
미쳐달리는 미제와 남조
선피괴호전광풍의 도발
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
게 전진해나가고있는 격
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
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
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인민군 전략군 화성포
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리병철동지, 김정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핵무기연
구부, 로켓연구부
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동행하였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새벽
발사 훈련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훈련을 진행
하게 된 화성포병들의 심장마디에는
우리의 거름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
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
고 정세를 핵전쟁점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전쟁미치광이들을 탄도로켓질중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열적
의 보복의지가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
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락경동지, 정치위원 전략군총장
박영태동지가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유사시 일본주둔 미제침략
군기지를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위급집서와
신속한 작전수행능력을 관장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략군사령관 김락경대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탄도로켓발사장
들을 돌아보시며 화력타격훈련준비
정형을 직접 료해하시고 감시소에
오르시며 발사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
였다.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대지를 락차고

솟구친 탄도로켓들이 천둥같은 폭음
을 머트리며 날아올라 밝아오는 동쪽
하늘에 원주격렬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가득 메운 탄도
로켓의 비행운을 바라보시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이제는 화력타격조
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정말 잘한다
고, 화력타격의 신속성과 일체성을 철
저히 보장한다고, 우리의 탄도로켓
들이 얼마나 고도로 정밀한지 동시발
사된 4발의 탄도로켓들이 마치 항
공교예비행대가 편대비행을 하듯 한
양상으로 날아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
하시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발사

훈련을 통하여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수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
게, 가장 철저하게 쳐도 없이 죽창쳐버
릴수 있는 최강의 핵공격무력으로 장
성강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
병부대들의 군사적위력이 남김없이 파
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번 탄도로켓 동시발사 훈련을 성과적
으로 진행한 화성포병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탄도
로켓들과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같은
최정예의 전략무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의 관가리결전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
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체 장병들은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
면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적의 화성포
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불
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리고 조국의 안전
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시수할
결사의 각오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정보도반

